

## 부모의 양육행동에 따른 청소년의 성격 특성이 가출행동에 미치는 영향\*

남 영 온\*\*

본 연구는 부모의 양육행동에 따른 청소년의 성격 특성의 차이점과 가출청소년과 비가출청소년 간의 성격 특성의 차이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부모의 양육행동이 현재 형성된 청소년의 성격 특성과 어떤 관계에 있고, 또 현재 나타난 성격 특성이 가출행동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이를 위해 일반고등학교 학생 146명과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되어 있는 청소년 156명을 대상으로 부모-자녀 결합형태척도(PBI)와 Cattell의 성격요인척도(16PF)를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부모의 양육행동 중 높은 돌봄상태와 낮은 과잉보호상태에 있는 청소년은 긍정적인 성격 특성이 높게 나타났고, 낮은 돌봄상태와 높은 과잉보호상태에 있는 청소년들은 부정적인 성격 특성이 높게 나타났다. 16PF와 가출행동과의 관계에서 16PF 22개 요인 중 긍정적인 의미를 내포하는 요인의 점수가 높은 청소년이 가출할 가능성이 적고,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는 요인의 점수가 높은 청소년이 가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부모의 양육행동이 높은 돌봄상태에 있거나 낮은 과잉보호상태에 있는 청소년들일수록 16PF 중 긍정적 의미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 이 논문은 2003년도 한남대학교 학술연구소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한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며, 또한 가출행동도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1. 서론

청소년 가출을 그 자체로 비행이나 범죄행위라고 규정할 수는 없지만, 학교 중퇴와 동거, 원조교제로 이어지는 일탈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가출은 많은 청소년 문제의 출발점이 될 수 있고, 사회 부적응과 비행 및 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주요 원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가출은 청소년기의 특성상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는 견해도 있으나 청소년 가출은 더 이상 일시적 현상이 아니며, 일부 문제학생이나 비행청소년만의 문제도 아니다. 최근 연구들에서 보여주는 결과는 가출을 단순히 청소년기의 발달과정상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박성자, 1999; 한상철, 1999; 현은민, 2000).

가출이 부정적인 가족환경에 대한 심리적 회피기제로서 생존전략적 차원에서 계획된 것(남영옥, 1999)이라고 할지라도, 청소년 가출은 사회의 각종 유해환경에 그들을 쉽게 노출시킴으로써 비행이나 범죄의 유발자가 되는 동시에 희생자가 되도록 한다.

경찰청 182 가출신고센터에 접수된 20살 미만 청소년들의 가출신고 건수는 1998년 15,316명에서 2000년에는 18,964명(경찰청, 2000)으로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공식적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사례까지 고려하여 한국청소년선도회에서 한해 가출하는 청소년의 수를 약 2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한국청소년상담원, 2000). 특히 여성 가출청소년은 성범죄에 의해 희생되거나 퇴폐유흥산업에 유입되어 매춘행위나 성적 착취의 위협에 놓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대검찰청 보고서에 의하면, 2000년 한해 동안 적발된 여성 매춘사범 8,033명 중 절반 정도가 10대이며, 이 가운데 21%가 16살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한겨레신문, 2001). 이는 가정과 학교 밖으로 밀려난 청소년이 낮에는 쪽방생활을 하고 밤에는 유흥가를 찾아 원조교제나 윤락행위 등의 범죄행위에 빠져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청소년 가출은 가정을 이탈한 청소년들이 비행이나 범죄에 노출되기 쉽다는 점과 그것이 사회문제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로 다루어져야 함을 말해준다.

많은 연구들은 청소년 기출은 개인, 가족, 학교, 또래집단, 사회환경의 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여 발생한다는 관점에서 다양한 요소들을 포괄적으로 조사하여 해결책을 찾아 온 경향이 있다. 그 중에서도 자녀에 대한 부모의 학대나 무관심, 과잉보호 등의 양육행동과 청소년의 충동성이나 우울·불안성향, 낮은 자아정체감 등의 성격 특성이 기출을 유발하고 지속시키는 근본적인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 먼저, 기출의 원인으로 부모의 양육행동 또는 가족환경을 고려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최근 연구들은 청소년 기출문제의 일차적 요인을 가족의 기능적 결함이나 심리역동적 환경에서 탐색하였다(Sharlin & Mor-Bark, 1992; 남영옥, 1999; 신림청소년 쉼터, 2000; 한국청소년상담원, 2000; 현은민, 2000). 이는 부모의 양육행동을 중심으로 하는 가족의 심리역동적 환경이 청소년의 성격을 형성하고 삶의 길을 결정하는 데 다른 어떠한 환경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출은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적 맥락에서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연구에서도 청소년 문제행동에 가장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는 공통요인으로서 부모의 양육행동을 강조하고 있다(김용석 외, 2000; 김혜영, 2000).

또한 청소년들은 성격적 결함과 정신적 장애, 스트레스 대처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부적절한 환경적 자극과 사회적 지지의 상실에 직면했을 때 합리적인 대처능력이 미숙함으로 인해 기출을 선택하게 된다(Unger et al., 1998; 한상철, 1999). 따라서 기출청소년은 심각한 심리정서적, 성격적 장애를 가지고 있어 비기출청소년과는 다른 성격 특성을 보이며, 이러한 성격 특성이 기출행동에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임종렬 외, 1996; 박성자, 1999; 이근후, 2000).

출생초기의 부모와 자녀관계는 자녀들의 자아발달과 성격형성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부모의 양육행동은 자녀의 문제행동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Bornstein & O'neill, 1992) 부모의 양육행동을 통한 부모자녀의 상호작용은 최초의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성격은 물론 자아개념, 태도, 행동수행 능력에 이르기까지 많은 영향을 미치고(Mahler et al., 1975; Kernberg, 1976; Masterson, 1985; Bowlby, 1988), 경우에 따라서는 기출과 같은 문제행동을 발생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한상우 외, 1998; 김혜영, 2000; 조선정, 2000).

이와 같이 부모의 양육행동과 가족환경이 자녀의 성격형성과 기출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는 있으나, 구체적으로 부모의 어떤 양육행동이 청소년들

의 성격 특성과 가출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청소년 가출에 관한 연구를 함에 있어 부모의 양육행동과 청소년의 성격 특성 변인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어떠한 변인들이 청소년의 가출행동과 관련이 되는가를 탐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행동에 따라 청소년의 성격 특성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살펴보고, 성격 특성은 가출청소년과 비가출청소년 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이들 부모의 양육행동과 청소년의 성격 특성이 가출행동과는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규명하여 청소년 가출을 예견하고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 2. 선행연구

### 1) 가출청소년의 성격 특성에 영향을 주는 부모의 양육행동

유아가 정상적인 발달을 거쳐 자기와 타인에 대해 일정한 이미지를 성취할 수 있게 되면 그 이후의 인간관계는 보다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다. 그러나 출생초기에 어머니로부터 충분한 애정과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거부당하거나 무시당하고 혹은 처벌을 받으면서 성장한다면, 유아의 내면에 형성되는 표상들(*representations*)은 대체로 부정적인 성격을 갖게 되고, 그 결과 낮은 자아존중감과 취약한 자아구조를 갖게 되며, 타인에 대해서도 왜곡된 지각과 부정적인 정서를 형성하게 되어 청소년이 되어서도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Mahler et al., 1975; Masterson, 1985).

문제가 있는 어머니와의 거래에서 부정적 이해로 자신감이 없는 청소년은 유기불안(*fear of abandonment*)을 갖게 되며,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하게 된다. 이것이 잠재되어 있다가 정서적으로 예민하고 불안정한 청소년기에 행동표출과 분노로 나타나게 되고, 반항적인 행동으로 보상받고자 한다(Scharff, 1989). 이러한 반항적인 행동이 가출 등의 문제행동이다. 따라서 가출청소년들은 확고한 자아상이 존재하지 않으며 충동을 스스로 억제하지 못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하며 좌절감에 대한 내성이 부족하여 불안정한 정서상태를 보이게 된다(Masterson, 1985).

가출청소년들의 부모는 자녀를 애정 없이 지나친 냉담으로 소외시키거나 또는 지나치게 과잉보호하는 경우가 많다(이근후, 2000). 애정이 없는 냉담한 가족환경에 있는 청소년은 가족외적 환경에서 보상적 인정을 받고 싶어 가출하고, 과잉보호하는 경우에는 숨막히는 가족환경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어 가출한다. 결국 부모의 비합리적이고 부적절한 양육행동이 가출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부모의 양육행동이 청소년의 가출충동에 미치는 영향을 애정적 태도, 거부적 태도, 의존성 조장 태도, 통제적 태도로 구분하여 알아본 연구(남영옥, 1999)에서는 애정적 태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들의 가출충동을 억제하고자 할 때 부모의 양육행동 중 애정적 태도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부모의 양육행동 중에서 가장 문제시되는 것은 어머니의 과잉보호이며, 자녀에 대한 이러한 과잉보호는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성격장애나 정신적 문제와 관계가 있다(Parker, 1983; 송지영, 1992). 이처럼 어머니가 자녀를 과잉보호하거나 소유하려 하고 지나치게 간섭할 경우 자녀의 성격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청소년기에 부정적인 성격 특성을 갖게 하는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부모의 양육행동과 청소년 자녀의 가출 및 문제행동과의 관련성에 관한 많은 선행연구들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청소년의 성격 특성이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을 입증하고 있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거부적이고 부정적이며 과잉보호적인 양육행동이나 애정결핍은 가출 등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유발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Amato, 1986; Demo, 1992; 박현선 외, 1997; 김용석 외, 2000). Bowlby(1988)도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관계가 손상된 경험이 있거나 손상된 상태에 있는 청소년은 심리적으로 불안 또는 혼란상태를 겪게 되고 가출과 같은 행동상의 문제를 보인다고 하였다.

## 2) 가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의 성격 특성

청소년 가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서 부모의 양육행동과 관련하여 청소년의 성격 특성을 들 수 있다. 가출청소년의 성격 특성으로 낮은 자존감과 낮은 신뢰감, 불안과 우울적 성향, 낮은 충동통제력, 부족한 인내력, 정체성 부족, 자신감 결여, 가정과 학교에서의 반복된 좌절로 인한 비규범성 등을 들 수 있다(나동석·이용교 역, 1991; 엄명용, 1996; 김초향, 1998; 한상철, 1999). 최근 연구에서도 가

출청소년들은 비가출청소년에 비해 자아존중감이 낮고, 우울성향이 높으며, 자기표현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신을 가치없는 존재로 여기고 무기력하며 자기의 주장을 자신있게 표현하지 못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강남구 청소년쉼터, 2000).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일관되지 못한 양육행동이나 자녀에 대한 무관심 등이 자녀의 성격장애적 스트레스를 더욱 심화시키고, 이는 자녀로 하여금 특정한 유형의 성격이나 행동특성을 갖게 한다는 것이다(김준호, 1992).

과잉보호하는 부모의 양육행동에 의해서 성장한 청소년들은 매를 맞고 학대 속에 자라난 청소년들처럼 나약하고 무기력하다. 과잉보호 역시 능력박탈을 조장하고 결과적으로 병리적 성격요인을 형성하게 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나약해진 자녀는 우울해하고 화를 잘 내며, 무조건 반항하게 되고, 이러한 우울과 반항은 수동-공격형 성격을 만들어 낸다. 부모의 지나친 간섭에 저항한 자녀는 죄책감을 갖게 되고, 죄책감은 의욕상실을 조장하고 이를 관장하는 부모의 간섭은 더욱 강화된다. 이러한 심리내적 현상은 어머니와의 관계적 실패로 인해 성장을 포기하는 원인이 되며, 삶을 향한 긍정적인 의미상실을 선언하는 불행한 결정으로서 가출이라는 자기도취적 자기학대를 하는 개인적 특성을 갖게 한다(임종렬 외, 1996).

이처럼 부모의 과잉보호가 높을수록 청소년 자녀는 우울하고 걱정하며 불안을 갖기 쉬운 특성인 죄책감과 불안감을 많이 나타낸다. 또한 부모의 돌봄이 높을수록 청소년은 자아강도, 실리성, 자기충족성 등의 긍정적인 성격을 나타내고, 돌봄이 낮을수록 불안감과 충동성, 공격성 등의 부정적인 성격을 나타낸다(염태호·김정규, 1991; 이혜원, 1992; 한상우 외, 1998). 이는 부모의 양육행동이 애정이 없고 강압적일 경우 청소년은 자아발달이 지연되고 자기조절이 불안정하여 충동에 의해 부정적인 관계를 갖게 되는 성격 특성과 관련이 있음을 말해준다. 결국 과잉보호가 높고 돌봄이 낮은 부모의 양육행동은 자녀의 성격 특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성격 특성이 청소년의 가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부모의 양육행동과 성격 특성은 청소년 가출의 중요한 요인으로서 그 상호관련성이 명확하게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 3. 조사방법

#### 1) 조사대상

본 연구는 부모의 양육행동 및 청소년의 성격 특성과 가출행동과의 관련성을 규명하여 청소년 가출행동을 예견하고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가출경험이 한 번도 없는 청소년(이하 '비가출청소년')과 한 번 이상 가출경험이 있는 청소년(이하 '가출청소년')과의 비교를 통해 이들간의 부모의 양육행동과 성격 특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비교적 비가출청소년의 구성비율이 높은 일반고등학교 학생과 반대로 가출청소년의 구성비율이 높다고 판단되는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되어 있는 청소년들을 각각 표집대상으로 삼았다. 소년원에 보호 중인 청소년들 대부분이 남자여서 여자들은 본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먼저 충청지역 소재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되어 있으면서 현장조사가 가능한 청소년 160명을 조사하였으며, 이들과 대비되는 일반고등학교 학생의 수도 수적 균형을 맞추기 위해 160명만 표집추출하였다. 일반고등학교 학생의 표본추출은 대전시 소재 4개교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1개 학교 당 1개 학급씩 총 4개 학급학생 160명을 전수조사하였다. 표집대상 320명 중 불성실 응답자 18명을 제외한 최종 302명의 조사자료만 분석에 이용하였다.

#### 2) 조사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도구들은 기존의 표준화된 측정도구들이었고, 크게 두 가지 척도를 사용하였다. 먼저, 부모의 양육행동척도로 부모-자녀 결합형태 측정도구 (*Parental Bonding Instrument; PBI*)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Parker 등(1979)이 개발하였고, Gamsa(1987)에 의해 개정된 문항을 송지영(1992)이 한국판으로 표준화한 도구이다. PBI는 16세 이전까지 자신에 대한 부모의 행동이나 태도를 기억하여 각 항목에서 '아주 그랬다', '그랬다', '안 그랬다', '전혀 안 그랬다'의 4개 평정척도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며, 총 25문항으로 돌봄 12문항, 과잉보호 1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모의 양육행동은 돌봄(*care*)차원과 과잉보호(*overprotection*)차원의 두 개 차원의

로서 돌봄차원은 높은 돌봄-낮은 돌봄, 과잉보호차원은 높은 과잉보호-낮은 과잉보호로 양극적 척도로 측정하도록 되어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계수가 .7686으로 나와 내적 일치도가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돌봄차원은 관심, 민감성, 사랑 등의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의미하고, 과잉보호는 통제, 요구, 처벌적 특징의 부정적인 양육행동을 의미한다. Parker(1979)는 PBI 도구가 부모와 자녀간의 적절한 결합과 왜곡된 결합의 측정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적절한 양육행동은 높은 돌봄과 낮은 과잉보호이며, 왜곡된 양육행동은 낮은 돌봄과 높은 과잉보호라고 하였다.

청소년의 성격 특성검사를 위해서 Cattell 등(1970)이 개발한 16성격요인검사(16 Personality Factor Questionnaire; 16PF)를 염태호와 김정규(1990)가 표준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16개의 성격요인과 16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토대로 16개의 기본 성격특성으로서 일차요인을 산출하고, 이를 다시 요인분석하여 6개의 이차요인을 산출하도록 되어있다.

15개 일차성격요인은 온정성(A), 지능(B), 자아강도(C), 지배성(E), 정열성(F), 도덕성(G), 대담성(H), 민감성(I), 불신감(L), 사변성(M), 실리성(N), 죄책감(O), 진보성(Q1), 자기충족성(Q2), 통제력(Q3), 불안감(Q4)이다. 그리고 6개 이차성격요인은 외향성(EXT), 불안성(ANX), 강정성(TOU), 자립성(IND), 초자아(SUP), 창의력(CRE)이다.

16PF검사의 장점은 거의 모든 성격범주를 다 포괄할 수 있어 임상장면뿐 아니라 일반인의 성격이해도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이다. 특히 청소년들의 사고유발 가능성, 가출 및 비행 가능성, 자살위험도, 알코올중독 및 약물남용 위험도 등 피검자의 특수한 행동을 예측할 수 있다(Cattell, 1970, 김정규 외, 1991에서 재인용).

본 연구에서는 한국심리적성연구소(KIPA)의 협조를 얻어 165개 문항에 대해 3점 또는 5점 척도로 조사한 뒤 KIPA가 스텐(STEN; Standard Ten) 점수로 환산해 준 자료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Cattell의 16PF척도는 이미 검증된 검사도구로 일반적으로 널리 적용하고 있어 척도의 신뢰도 검사를 생략하고 165개 하위척도를 모두 분석에 사용하였다. 이밖에도 응답자의 특성을 알기 위한 인구통계학적 변수도 조사하였으며, 특히 가출행동은 조사응답자의 실제 가출경험 횟수를 비율척도(ratio scale)로 조사하였다.



### 3)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분석

본 조사는 기 작성된 설문지를 통하여 2000년 9월 15일부터 10월 7일까지 대전시 소재 일반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연구자가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 담임교사에게 의뢰하여 조사하였고,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에는 연구자가 조사실시 담당관에게 조사실시 요청과 설문지를 전달하여 조사 후 회수하였다.

본 연구는 SPSS PC+를 이용하여 통계분석하였으며, 먼저 부모의 양육행동과 16PF 간에 어떤 관계가 있고,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t-test, ANOVA, 정준상관분석(*canonical correlation analysis*)을 하였다. 그리고 16PF가 청소년의 가출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단계식 다중회귀분석을 실행하였다.

## 4. 연구결과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전체 조사대상자 302명 중 비가출청소년은 158명(52.3%)이었고, 가출청소년은 144명(47.7%)이었다.

부모유형별로 보면 친부모가 있는 청소년이 200명(66.2%)으로 가장 많았고, 가정의 경제적 수준으로는 중류 가정이 159명(52.6%)으로 가장 많았다. 조사대상자의 가정적 특성과 가출경험 여부를 교차해서 살펴보면, 먼저 부모유형이 친부모일 경우는 31% 정도만 가출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모유형이 정상적이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는 청소년들은 60% 이상이 가출경험이 있어 현격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새아버지+친어머니' 유형에 속하는 청소년의 경우는 92.9%나 가출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가출경험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편 표본추출을 위해 구분하였던 일반고등학교와 소년원 등 특수고등학교 학생들 간에도 가출경험 비율이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데, 일반고등학교의 경우는 10명 중 1

명 정도(11.0%)가 가출경험이 있었으나, 특수고등학교의 경우는 10명 중 8명 이상(82.1%)이 가출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보다 2학년 학생의 가출경험 비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소년분류심사원에 재소중인 고등학교 중퇴자 또는 고등학교에 다니지 않는 '기타' 분류자 모두가 가출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출행동을

〈표 1〉 조사대상자의 가출행동 여부별 특성

(단위 : 명, %)

구 분	인구학적 특성	가출행동 여부		응답자 분포
		비가출 청소년	가출 청소년	전 체 (%)
부도유형	친부모	138	62	200(66.2)
	홀어머니	7	11	18(6.0)
	홀아버지	5	23	28(9.3)
	새아버지+친어머니	1	13	14(4.6)
	친아버지+새어머니	4	21	25(8.3)
	기타 양육자	3	14	17(5.6)
경제적 수준	상	2	2	2(0.7)
	중상	16	13	29(9.6)
	중	99	60	159(52.6)
	중하	34	53	87(28.8)
	하	6	17	23(7.6)
	무응답	1	1	2(0.7)
학 교	일반고등학교	130	16	146(48.3)
	특수고등학교	28	128	156(51.7)
학 년	고등학교 1학년	68	38	106(35.1)
	고등학교 2학년	90	93	183(60.6)
	기타		13	13(4.3)
가출행동	없음	158		158(52.3)
	1~2회		45	45(14.9)
	3~4회		43	43(14.2)
	5~6회		24	24(7.9)
	7~8회		8	8(2.6)
	9~10회		3	3(1.0)
	10회 이상		15	15(5.0)
	무응답		6	6(2.0)
총 계		158(52.3)	144(47.7)	332(100)

가출경험 횟수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앞서 언급한대로 조사대상자 중 1번도 가출경험이 없는 비가출청소년은 158명(52.3%)이었고, 1번 이상 가출경험이 있는 가출청소년 중 1~2회 이하 경험자가 45명(14.9%)으로 가장 많았으며, 3~4회 이하 경험자도 43명(14.2%)으로 그 다음 순이다. 가출경험 횟수가 많아질수록 해당되는 경험자의 비율은 줄어드는 경향이 있으나 10회 이상 가출경험이 있는 청소년도 5%나 되는 것은 주목할만하다.

## 2) 부모의 양육행동과 16PF

부모의 양육행동(PBI)은 25개 문항 중 부모의 '돌봄'을 측정하는 12개 문항과 '과잉보호'를 측정하는 13개 문항으로 구분하였으며, 먼저 '높은 돌봄'군과 '낮은 돌봄'군은 '돌봄'을 측정하는 12개 문항의 전체 평균점수를 구한 후 평균점수 이상을 얻은 청소년은 '높은 돌봄'군으로, 반대로 평균점수 이하를 얻은 청소년은 '낮은 돌봄'군으로 구분하였다. 한편 '높은 과잉보호'군과 '낮은 과잉보호'군도 역시 '과잉보호'를 측정하는 13개 문항의 전체 평균점수를 구한 후 평균점수 이상을 얻은 청소년은 '높은 과잉보호'군으로, 반대로 평균점수 이하를 얻은 청소년은 '낮은 과잉보호'군으로 구분하였다.

### (1) 부모의 양육행동과 16PF 평균점수 비교

#### ① 높은 돌봄-낮은 돌봄별 16PF 평균점수 비교

높은 돌봄상태에 있는 청소년과 낮은 돌봄상태에 있는 청소년을 구분하여 16PF의 평균점수를 정리한 것이 <표 2>이다.

16PF 중 일차요인 16개와 이차요인 6개 중 높은 돌봄 청소년의 평균점수가 높게 나타난 요인은 온정성(A), 지능(3), 자아강도(C), 지배성(E), 정열성(F), 도덕성(G), 대담성(H), 민감성(I), 불신감(L), 실리성(N), 통제력(Q3), 외향성(EXT), 강정성(TOU), 자립성(IND), 초자아(SUP), 창의력(CRE) 이상 16개 요인이었으며, 반면 낮은 돌봄 청소년의 평균점수가 높게 나타난 요인은 사변성(M), 죄책감(O), 진보성(Q1), 자기 충족성(Q2), 불안감(Q4), 불안성(ANX) 이상 6개 요인이었다.

〈표 2〉 높은 돌봄-낮은 돌봄별 16PF 평균점수

	Mean (SD)		t-value	df	1-tail sig.
	높은 돌봄 (N=168)	낮은 돌봄 (N=128)			
온정성 (A)	5.94 (2.02)	5.66 (1.85)	1.21	294	.114
지능 (B)	4.95 (1.97)	4.50 (2.28)	1.79	251.31	.037
자아강도 (C)	5.92 (1.95)	5.31 (1.83)	2.79	294	.003
지배성 (E)	5.60 (1.95)	5.41 (2.05)	.83	294	.203
정열성 (F)	6.09 (1.93)	5.67 (1.71)	1.94	294	.027
도덕성 (G)	5.26 (1.89)	4.87 (1.81)	1.79	294	.038
대담성 (H)	5.98 (1.95)	5.49 (1.90)	2.14	294	.017
민감성 (I)	4.79 (2.01)	4.73 (1.78)	.23	294	.410
불신감 (L)	5.30 (2.03)	4.72 (1.92)	2.51	294	.006
사변성 (M)	4.93 (1.90)	4.97 (1.73)	-.16	294	.437
실리성 (N)	5.65 (2.06)	4.94 (2.04)	2.96	294	.002
죄책감 (O)	5.21 (1.97)	5.78 (1.97)	-2.45	294	.008
진보성 (Q1)	4.74 (2.17)	4.79 (2.29)	-.20	294	.423
자기 충족성 (Q2)	5.43 (2.11)	5.50 (1.98)	-.30	294	.384
통제력 (Q3)	5.24 (1.92)	4.88 (1.84)	1.60	294	.055
불안감 (Q4)	5.11 (2.11)	5.82 (1.97)	-2.97	294	.002
외향성 (EXT)	6.17 (1.59)	5.99 (1.52)	.99	294	.163
불안성 (ANX)	5.42 (1.43)	6.05 (1.45)	-3.74	294	.000
강정성 (TOU)	6.46 (1.64)	6.44 (1.45)	.15	287.49	.441
자립성 (IND)	5.86 (1.53)	5.52 (1.54)	1.90	294	.029
초자아 (SUP)	5.36 (1.81)	5.09 (1.72)	1.27	294	.103
창의력 (CRE)	5.35 (1.16)	5.27 (1.33)	.49	294	.311

16PF 22개 요인 중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것은 11개 요인이며, 비교적 큰 점수차이를 보이는 요인은 자아강도(C), 불신감(L), 실리성(N), 불안감(Q4), 불안성(ANX) 등이다. 성격요인 중 불신감(L)은 부정적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돌봄상태에 있는 청소년의 평균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진보성(Q1), 자기 충족성(Q2)은 긍정적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낮은 돌봄상태에 있는 청소년의 평균점수가 더 높게 나타난 것은 주목할만하다.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요인은 높은 돌봄상태에 있는 청소년의 평균점수가 높고, 부정적 요인은 낮은 돌봄상태에 있는 청소년들의 평균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높은 돌봄은 안정된 정서와 자아성숙, 그리고 현실적응력을 나타내는 자아강도(C)와 이해타산적이고 실리적인 특성인 실리성(N), 자주적이며 자기의 사결정적 특징인 자기충족성(Q2)과 상관관계가 있고, 낮은 돌봄은 불안하고 좌절되고 긴장된 경향을 나타내는 불안감(Q4)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한상우 외, 1998)와 일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높은 돌봄상태에 있는 청소년들은 긍정적 성격특성과 상관이 있고, 낮은 돌봄상태에 있는 청소년들은 부정적 성격특성과 상관이 있음을 의미한다.

#### ② 낮은 과잉보호-높은 과잉보호별 16PF 평균점수 비교

낮은 과잉보호상태에 있는 청소년과 높은 과잉보호상태에 있는 청소년을 구분하여 16PF의 평균점수를 t-test하여 정리한 것이 <표 3>이다.

16PF 중 일차요인 16개와 이차요인 6개 중 낮은 과잉보호 청소년의 평균점수가 높게 나타난 요인은 온정성(A), 지능(B), 자아강도(C), 지배성(E), 정열성(F), 도덕성(G), 대담성(H), 불신감(L), 실리성(N), 진보성(Q1), 자기충족성(Q2), 통제력(Q3), 외향성(EXT), 강정성(TOU), 자립성(IND), 초자아(SUP), 창의력(CRE) 이상 17개 요인이었으며, 반대로 높은 과잉보호 청소년의 평균점수가 높게 나타난 요인은 민감성(I), 사변성(M), 죄책감(O), 불안감(Q4), 불안성(ANX) 이상 5개 요인으로 나타났다.

16PF 22개 요인 중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것은 10개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낮은 과잉보호 청소년과 높은 과잉보호 청소년 간에 비교적 큰 점수 차이를 보이는 요인은 자아강도(C), 실리성(N), 불안감(Q4), 불안성(ANX) 등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요인은 낮은 과잉보호상태에 있는 청소년의 평균점수가 높고, 부정적 요인은 높은 과잉보호상태에 있는 청소년의 평균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낮은 과잉보호는 자아강도, 도덕성, 실리성, 외향성, 대담성, 초자아 등과 상관관계가 있고, 높은 과잉보호는 죄책감 및 불안감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한상우 외, 1998)와 일치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부모의 양육행동 중 가장 문

〈표 3〉 낮은 과잉보호- 높은 과잉보호별 16PF 평균점수

	Mean (SD)		t-value	df	1-tail sig.
	낮은 과잉보호 (N=150)	높은 과잉보호 (N=134)			
온정성 (A)	6.13 (1.93)	5.60 (1.87)	2.34	282	.010
지능 (B)	4.99 (2.02)	4.60 (2.22)	1.54	270.30	.066
자아강도 (C)	6.10 (1.85)	5.13 (1.72)	4.57	282	.000
지배성 (E)	5.67 (2.06)	5.40 (1.94)	1.14	282	.129
정열성 (F)	6.11 (1.85)	5.78 (1.72)	1.52	282	.065
도덕성 (G)	5.20 (1.91)	4.89 (1.78)	1.42	282	.079
대담성 (H)	6.03 (1.87)	5.46 (1.95)	2.52	282	.006
민감성 (I)	4.62 (1.92)	4.96 (1.89)	-1.52	282	.066
불신감 (L)	5.26 (1.78)	4.82 (2.16)	1.86	258.34	.032
사변성 (M)	4.89 (1.97)	5.06 (1.66)	-.80	281.00	.212
실리성 (N)	5.63 (1.92)	4.99 (2.14)	2.66	282	.004
죄책감 (O)	5.19 (1.92)	5.75 (1.98)	-2.42	282	.008
진보성 (Q1)	4.86 (2.21)	4.67 (2.20)	.72	282	.237
자기 충족성 (Q2)	5.56 (2.04)	5.34 (2.00)	.90	282	.184
통제력 (Q3)	5.24 (1.90)	4.93 (1.88)	1.40	282	.082
불안감 (Q4)	5.08 (1.85)	5.85 (2.22)	-3.20	282	.001
외향성 (EXT)	6.27 (1.54)	5.96 (1.49)	1.69	282	.046
불안성 (ANX)	5.37 (1.34)	6.10 (1.45)	-4.41	282	.000
강정성 (TOU)	6.55 (1.64)	6.32 (1.46)	1.23	282.00	.111
자립성 (IND)	5.96 (1.54)	5.46 (1.49)	2.77	282	.003
초자아 (SUP)	5.31 (1.83)	5.11 (1.73)	.95	282	.172
창의력 (CRE)	5.35 (1.19)	5.33 (1.25)	.13	282	.450

제시되는 것은 어머니의 과잉보호이며,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과잉보호적 태도는 이후 성인에서 나타나는 성격장애나 정신적 문제와 관계가 있다는 연구(Paker, 1983)와도 일치한다. 결국 청소년들에 대한 부모의 돌봄의 정도가 높고 과잉보호의 정도가 낮을수록 긍정적 성격특성과 관련성이 많음을 알 수 있다.

(2) 부모의 양육행동과 16PF와의 관계

부모의 양육행동 중 돌봄과 과잉보호변인과 16PF와의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준상관분석을 실행하였다. 정준상관분석은 여러 개의 독립변인을 가지고 2개 이상의 종속변인들의 값을 동시에 추정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통계기법이다.

부모의 양육행동변인군, 즉 돌봄변인과 과잉보호변인을 독립변인군으로 두고,

16PF변인군 즉 16개 일차요인과 6개 이차요인을 각각 종속변인군으로 둘 때 독립변인군과 종속변인군 간의 관계를 추정한 것이 <표 4>와 <표 5>이다.

<표 4>와 같이 돌봄-과잉보호변인군을 독립변인으로 16PF 중 일차요인을 종속변인으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2개의 함수(Function)로 정리되었으며, 이때 제1함수의 정준분산량은 11.773%, 제2함수의 정준분산량은 2.655%로 2개 함수의 전체적인 누적분산량은 14.428%이다.

정준분산량이 더 높은 제1함수에서 돌봄변인의 정준가중치(정준변형계수)는 .790으로 과잉보호변인의 정준가중치 -.344보다 절대값도 크고 부호도 반대임을 알 수 있다. 즉 독립변인군 중에서 돌봄변인은 종속변인군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과잉보호변인은 '-'(부)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대로 종속변인군에서 보면 역시 제1함수의 정준분산량이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종속변인군 중 온정성(A), 지능(B), 자아강도(C), 지배성(E), 정열성(F), 도덕성(G), 대담성(H), 불신감(L), 실리성(N), 자기충족성(Q2), 통제력(Q3) 요인은 독립변인군에 '+'(정)의 영향을, 민감성(I), 사변성(M), 죄책감(O), 진보성(Q1), 불안감(Q4) 요인은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요약해 보면 부모의 양육행동과 16PF의 일차요인과의 정준상관분석에서는 제1함수가 더 의미있는 함수로서 독립변인군 중 돌봄변인이 16PF의 일차요인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으며(정준가중치의 절대값이 비교적 큰 변인), 종속변인군 중 독립변인에 비교적 더 크게 영향을 받는 변인은 실리성(N), 진보성(Q1), 자아강도(C) 요인 등(정준가중치의 절대값이 비교적 큰 변인)인 것을 알 수 있다.

<표 5>와 같이 돌봄-과잉보호변인군을 독립변인으로, 16PF 중 이차요인을 종속변인군으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1개의 함수로 정리되었으며 독립변인군의 정준분산량은 7.460%, 종속변인군의 정준분산량은 23.433%로 나타났다. 돌봄변인의 정준가중치는 .414였으며, 과잉보호변인은 -.735로 과잉보호변인의 절대값이 더 크게 나타났다. 즉 독립변인군 중에서 돌봄변인은 종속변인군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과잉보호변인은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종속변인군 중 강정성(TOU), 자립성(IND), 초자아(SUP), 창의력(CRE) 요인은 독립변인군에 '+'(정)의 영향을, 외향성(EXT), 불안성(ANX) 요인은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이를 요약하면 부모의 양육행동과 16PF의 이차요인과의 정준상관분석에서는 1개의 함수로 정리되었고, 독립변인군 중 과잉보호변인이 16PF의 이차요인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고(정준가중치의 절대값이 비교적 큰 변인), 종속변인군 중 독립변인에 비교적 더 크게 영향을 받는 변인은 불안성(ANX), 초자아(SUP)요인 등(정준가중치의 절대값이 비교적 큰 변인)인 것을 알 수 있다.

〈표 4〉 돌봄-과잉보호변인군과 16PF 일차요인 변인군간 정준상관분석 결과

변인	Function 1		Function 2		F	Sig. of F
	정준 가중치	정준 상관관계	정준 가중치	정준 상관관계		
〈독립변인군〉						
돌봄	.790	.953	.817	.302	3.098	.000
과잉보호	-.344	-.719	1.083	.695	2.456	.002
정준분산량(%)	11.773		2.655			
누적분산량(%)	11.773		14.428			
Sig. of F	Pillais		.000			
	Hotellings		.000			
	Wilks		.000			
〈종속변인군〉						
온정성(A)	.112	.282	-.405	-.151		
지능(B)	.197	.298	.254	.270		
자아강도(C)	.316	.687	-.196	-.293		
지배성(E)	.076	.293	-.421	-.031		
정열성(F)	.002	.215	.229	.221		
도덕성(G)	.113	.407	-.085	.059		
대담성(H)	.024	.427	.221	.070		
민감성(I)	-.005	-.110	.623	.563		
불신감(L)	.219	.440	.209	.216		
사변성(M)	-.064	-.112	-.035	.213		
실리성(N)	.511	.637	.401	.352		
죄책감(O)	-.201	-.437	-.033	.300		
진보성(Q1)	-.363	-.065	-.183	-.008		
자기충족성(Q2)	.166	.027	-.244	-.365		
통제력(Q3)	.032	.399	.061	.039		
불안감(Q4)	-.068	-.438	.381	.397		
정준분산량(%)	14.302		7.215			
누적분산량(%)	14.302		21.517			



〈표 5〉 돌봄-과잉보호변인군과 16PF 이차요인 변인군간 정준상관분석 결과

변인		Function 1		F	Sig. of F
		정준가중치	정준상관관계		
〈독립변인군〉					
돌봄		.414	.763	3.201	.005
과잉보호		-.753	-.931	4.563	.000
정준분산량(%)		7.460			
누적분산량(%)		7.460			
Sig. of F	Pillais	.001			
	Hotellings	.001			
	Wilks	.001			
〈종속변인군〉					
외향성(EXT)		-.003	.203		
불안성(ANX)		-.715	-.906		
강정성(TOU)		.292	.286		
자립성(IND)		.254	.502		
초자아(SUP)		.314	.455		
창의력(CRE)		.026	-.045		
정준분산량(%)		23.433			
누적분산량(%)		23.433			

### 3) 16PF와 가출행동

#### (1) 가출행동 여부별 16PF 평균점수 비교

가출경험이 있는 청소년과 가출경험이 없는 청소년 간에 Cattell의 성격요인 검사 16PF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t-test한 결과가 〈표 6〉이다.

일차요인 16개의 이차요인 6개 중 비가출청소년의 평균점수가 높게 나타난 요인은 온정성(A), 지능(B), 자아강도(C), 지배성(E), 도덕성(G), 대담성(H), 실리성(N), 진보성(Q1), 통제력(Q3), 외향성(EXT), 강정성(TOU), 자립성(IND), 초자아(SUP), 창의력(CRE) 이상 14개 요인이며, 반대로 가출청소년의 평균점수가 높게 나타난 요인은 정열성(F), 민감성(I), 불신감(L), 사변성(M), 죄책감(O), 자기 충족성(Q2), 불안감(Q4), 불안성(ANX) 이상 8개 요인이었다.

전체 22개 요인 중 13개 요인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로 나타났으며, 비가출 청소년과 가출청소년 간에 비교적 큰 점수차이를 보이는 요인은 지능(B)과 실리성

(N)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연구대상자가 청소년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긍정적인 의미를 내포하는 요인의 점수는 높게, 반대로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는 요인의 점수는 낮게 나타나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가출경험이 없는 비가출청소년의 경우 긍정적인 의미를 내포하는 요인들의 평균점수가 높고, 가출청소년의 경우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는 요인들의 평균점수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16PF 22개 요인 중 긍정적인 의미를 내포하는 요인의 점수가 높은 청소년이 가출할 가능성이 작고,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는 요인의 점수가 높은 청소년이 가출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표 6〉 가출행동 여부별 16PF 평균점수

16PF	Mean (SD)		t-value	df	1-tail sig.
	비가출 (N=159)	가출 (N=138)			
온정성 (A)	5.94 (1.89)	5.73 (2.00)	.91	294	.183
지능 (B)	5.37 (1.95)	4.10 (2.12)	5.34	294	.000
자아강도 (C)	5.98 (1.90)	5.36 (1.91)	2.28	294	.003
지배성 (E)	5.58 (1.92)	5.46 (2.08)	.51	294	.304
정열성 (F)	5.93 (1.91)	5.97 (1.75)	-.19	294	.425
도덕성 (G)	5.23 (1.92)	4.88 (1.76)	1.63	294	.050
대담성 (H)	6.00 (1.94)	5.58 (1.93)	1.87	294	.032
민감성 (I)	4.61 (1.90)	4.91 (1.88)	-1.36	294	.088
불신감 (L)	5.03 (2.08)	5.04 (1.94)	-.05	294	.482
사변성 (M)	4.84 (1.76)	5.09 (1.88)	-1.19	294	.118
실리성 (N)	5.91 (2.06)	4.66 (1.90)	5.41	294	.000
죄책감 (O)	5.23 (1.93)	5.62 (2.07)	-1.70	294	.045
진보성 (Q1)	5.20 (2.24)	4.25 (2.13)	3.73	294	.000
자기 충족성 (Q2)	5.26 (2.12)	5.66 (1.94)	-1.69	294	.047
통제력 (Q3)	5.25 (2.04)	4.87 (1.70)	1.74	293.36	.042
불안감 (Q4)	5.28 (2.00)	5.56 (2.16)	-1.16	294	.124
외향성 (EXT)	6.28 (1.64)	5.96 (1.42)	1.85	293.98	.033
불안성 (ANX)	5.48 (1.49)	5.88 (1.41)	-2.42	294	.008
강정성 (TOU)	6.55 (1.57)	6.35 (1.53)	1.12	294	.131
자립성 (IND)	5.82 (1.49)	5.62 (1.60)	1.12	294	.133
초자아 (SUP)	5.39 (1.87)	5.02 (1.61)	1.82	294	.035
창의력 (CRE)	5.44 (1.17)	5.18 (1.30)	1.78	294	.038

이러한 결과는 비행청소년군은 지능, 진보성, 통제력, 초자아, 창의력이 학생청소년에 비해 낮게 나타난 연구(한상우 외, 1998)와, 비행청소년은 일반청소년에 비해 공통적으로 낮은 지능, 충동성, 보수성, 약한 도덕성, 낮은 창의성의 성격특성을 나타낸다는 연구(연태호·김정규, 1991), 그리고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은 지능, 자아강도, 도덕성, 실리성, 진보성, 자기충족성, 통제력 요인에서 차이가 있다는 연구(이혜원, 1992)와 유사한 면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결과들을 보면, 가출청소년들은 자아발달이 지연되고, 자기조절이 불완전하여 좌절감을 이겨내지 못하고 공격적이며, 충동에 의해 순간적으로 좌우되는 비행경향성이 높은 성격과 상관이 있다고 볼 수 있겠다. 따라서 청소년의 성격 특성이 가출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 (2) 16PF와 가출행동과의 관계

청소년의 가출행동과 16PF 간의 인과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가출행동(가출경험 횟수) 변인에 대한 16PF 변인을 다중회귀분석한 결과가 <표 7> 과 <표 8> 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가출청소년과 비가출청소년 간에 16PF 평균점수 분포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음을 알았다. 본 항에서는 전체 조사대상 청소년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가출행동(종속변인)과 16PF 점수(독립변인) 간의 영향력을 알아보려고 한다. 다중회귀분석은 16PF 중 일·이차요인간의 정밀한 분석을 위하여 가출행동과 16PF 중 일차요인과 이차요인을 분리하여 분석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인을 찾아내기 위하여 Method는 Stepwise 방식을 택하였다.

<표 7> 과 같이 16PF 일차요인 중 지능(B)과 대담성(H), 실리성(N)의 회귀계수가 각각 -.425와 -.424, -.256으로 나타나 가출행동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능과 대담성, 실리성이 높을수록 가출행동이 적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불안감과 사변성이 클수록 가출행동을 많이 한다는 것도 알 수 있다.

<표 8> 과 같이 16PF 이차요인 중에서는 창의력(CRE)의 회귀계수가 -.694로 가장 크며, 나머지 외향성(EXT)과 감정성(TOU)도 각각 -.556과 -.454로 비교적 크게 나타났다. 즉, 창의성이 좋고, 외향성과 감정성이 강할수록 가출행동이 적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7〉 가출행동과 16PF 일차요인 간 다중회귀분석 결과

종속 변인	상수	독립변인 - B값					R <sup>2</sup>	F	Sig. F
		지능 (B)	대담성 (H)	불신감(I)	실리성 (N)	사변성 (M)			
가출행동	5.621	-.425	-.424	.271	-.256	.225	.165	11.430	.0000
SE	.913	.096	.111	.104	.105	.111	Method = Stepwise		
T	6.158	-4.408	-3.820	2.601	-2.445	2.028			
Sig. T	.0000	.0000	.0002	.0098	.0151	.0435			

〈표 8〉 가출행동과 16PF 이차요인간 다중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인	상수	독립변인 - B값			R <sup>2</sup>	F	Sig. F
		외향성(FXT)	창의력(CRF)	강정성(TOI)			
가출행동	12.269	-.556	-.694	-.454	.072	7.601	.0001
SE	2.281	.139	.223	.163	Method = Stepwise		
T	5.5380	-3.995	-3.422	-2.786			
Sig. T	.0000	.0001	.0009	.0057			

4) 부모의 양육행동 및 16PF와 청소년 가출행동과의 관계

앞에서 부모의 양육행동과 16PF와의 관계, 그리고 16PF와 가출행동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본 항에서는 청소년 부모의 양육행동(돌봄 과잉보호)이 현재 형성된 16PF와 어떤 관계에 있고, 또 현재 나타난 16PF는 가출행동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알아보았는데 〈표 9〉와 〈표 10〉과 같다.

〈표 9〉는 부모의 양육행동(돌봄 과잉보호)과 16PF의 일차요인 간의 정준상관분석 결과, 그리고 16PF 일차요인과 가출행동과의 다중회귀분석 결과를 도식화한 것이다.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모의 양육행동변인군 중 돌봄변인이 16PF 일차요인에 ‘+’(정)의 방향으로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과잉보호변인은 ‘-’(부)의 방향으로 돌봄변인보다 더 적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돌봄의 정도가 높을수록 16PF의 일차요인의 점수를 더 높게 해주며, 반대로 과잉보호 정도가 높을수록 16PF의 일차요인의 점수를 다소 낮게 해준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편 16PF의 일차요인 중에서 가출행동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부호와 상관없이 지능(-.425)과 대담성(-.424)이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이 두 요인은 모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실리성(N)요인 또한 회귀계수의 절대값은 비교적 작지만 역시 ‘-’(부)의 회귀관계를 보였다. 즉, 지능, 대담성, 실리성의 점수가 높을수록 가출행동의 횟수가 줄어든다는 의미이며, 반대로 불안감(.271)과 사변성(.225)의 점수가 높을수록 가출행동의 횟수가 늘어난다는 점도 해석이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부모의 양육행동변인군 중 돌봄변인이 클수록 16PF 중 일차요인의 점수분포는 비교적 크게 높아지고, 16PF의 일차요인 중 지능, 대담성, 실리성의 점수가 높을수록 가출행동은 억제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9〉 부모의 양육행동, 16PF(일차요인)와 청소년 가출행동과의 관계

분석도구	정준상관분석		다중회귀분석	
변인구분	〈부모의 양육행동〉 →독립 변인군	↓ 종속← 〈16PF〉 변인군	↓ 독립 변인	↓ 종속변인← 〈가출행동〉
인과관계	〈정준가중치〉		〈회귀계수〉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right: 10px;">돌봄</div> <div style="margin-right: 10px;">.790</div> <div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border-right: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16 PF 일차요인</div>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right: 10px;">과잉보호</div> <div style="margin-right: 10px;">-.344</div> <div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border-right: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16 PF 일차요인</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right: 10px;">온전성 (A)</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right: 10px;">지능 (B)</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right: 10px;">자아강도 (C)</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right: 10px;">지배성 (E)</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right: 10px;">정열성 (F)</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right: 10px;">도덕성 (G)</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right: 10px;">대담성 (H)</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right: 10px;">민감성 (I)</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right: 10px;">불신감 (L)</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right: 10px;">사변성 (M)</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right: 10px;">실리성 (N)</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right: 10px;">죄책감 (O)</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right: 10px;">진보성 (Q1)</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right: 10px;">자기충족성 (Q2)</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right: 10px;">통제력 (Q3)</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right: 10px;">불안감 (Q4)</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right: 10px;">- .425</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right: 10px;">- .424</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right: 10px;">.271</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right: 10px;">.225</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right: 10px;">-.256</div>
통계량	Function		1/2	Method
	정준분산량		11.773%	R <sup>2</sup>
	Sig. F	Pillais	.000	F
		Hotellings	.000	Sig. F
Wilks	.000	.0000		

constant=5.621

〈표 10〉 부모의 양육행동, 16PF(이차요인)와 청소년 가출행동과의 관계

분석 도구	정준상관분석		다중회귀분석	
변인 구분	〈부모의 양육행동〉 →독립 변인군		종속←〈16PF〉→독립 변인군      종속변인←〈가출행동〉	
인과 관계	〈정준가중치〉		〈회귀계수〉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right: 10px;">돌봄</div> <div style="margin-right: 10px;">→ .414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right: 10px;">16PF 이차 요인</div> <div style="margin-right: 10px;">→</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가출행동 (기출횟수)</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right: 10px;">과잉보호</div> <div style="margin-right: 10px;">→ -.735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right: 10px;">16PF 이차 요인</div> <div style="margin-right: 10px;">→</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가출행동 (기출횟수)</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flex-direction: column; align-items: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5px;">외향성 (EXT)</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5px;">불안성 (ANX)</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5px;">강정성 (TOU)</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5px;">자립성 (IND)</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5px;">초자아 (SUP)</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5px;">창의력 (CRE)</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flex-direction: column; align-items: center;"> <div style="margin-bottom: 5px;">→ -.556</div> <div style="margin-bottom: 5px;">→ -.454</div> <div style="margin-bottom: 5px;">→ -.694</div> </div>
통계량	Function	1/1	Method	stepwise
	정준분산량 (%)	7.46%	R <sup>2</sup>	.072
	Sig. F	Pillais	F	7.601
		Hotellings	Sig. F	.0001
		Wilks		

〈표 10〉은 부모의 양육행동(돌봄-과잉보호)과 16PF 중 이차요인간의 정준상관분석 결과, 또 16PF 중 이차요인과 가출행동과의 다중회귀분석 결과를 도식화한 것이다.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모의 양육행동변인군 중 과잉보호변인이 16PF 중 이차요인에 ‘-’(부)의 방향으로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돌봄변인은 ‘+’(정)의 방향으로 과잉보호변인보다 더 적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과잉보호의 정도가 높을수록 16PF 중 이차요인의 점수를 더 낮게 해주며, 반대로 돌봄정도가 높을수록 16PF 중 이차요인의 점수를 다소 높게 해준다.

한편 16PF의 이차요인 중에서 가출행동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부호와 상관없이 창의력(-.694)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 외향성(-.556), 강정성(-.454) 순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난 이들 3개 요인은 모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창의력과 외향성, 그리고 강정성의 점수가 클수록 가출행동의 횟수가 줄어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부모의 양육행동변인군 중 과잉보호변인이 클수록 16PF의 이차요인의 점수 분포는 비교적 크게 낮아지고, 16PF의 이차요인 중 창의력, 외향성, 강정성의 점수가 높을수록 가출행동은 억제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부모의 양육행동이 다수의 성격 특성들과 관련성이 있음을 나타낸다. 그리고 부모의 돌봄이 높을수록, 부모의 과잉보호가 낮을수록 긍정적인 성격과 관련되고, 이러한 성격 특성이 가출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아동기 부모의 양육행동과 가족환경이 나중의 성격발달과 문제유형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한농교, 1994)와, 부모의 양육행동이 원만하지 않을수록 사회적 학습과 관련된 반사회적 공격행동보다는 성격 특성의 결함이나 왜곡에 기저한 가출과 같은 부적응성 도피행동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밝힌 연구(이길홍 외, 1982)와 일치하고 있다.

##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부모의 양육행동에 따른 청소년의 성격 특성의 차이점과 가출청소년과 비가출청소년 간의 성격 특성의 차이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들 부모의 양육행동 및 청소년의 성격 특성과 가출행동과의 관련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부모의 양육행동이 높은 돌봄상태에 있는 청소년들은 16PF 중 온정성, 지능, 자아강도, 지배성, 정열성, 도덕성, 대담성, 민감성, 불신감, 실리성, 통제력, 외향성, 강정성, 자립성, 초자아, 창의력 이상 16개 요인의 평균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반면 낮은 돌봄상태에 있는 청소년들은 사변성, 죄책감, 진보성, 자기충족성, 불안감, 불안성 이상 6개 요인의 평균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보아 긍정적인 요인은 높은 돌봄상태에 있는 청소년의 평균점수가 높고, 부정적인 요인은 낮은 돌봄상태에 있는 청소년들의 평균점수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부모의 양육행동이 낮은 과잉보호상태에 있는 청소년들은 온정성, 지능, 자아강도, 지배성, 정열성, 도덕성, 대담성, 불신감, 실리성, 진보성, 자기충족성, 통제력, 외향성, 강정성, 자립성, 초자아, 창의력 이상 17개 요인의 평균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반면 높은 과잉보호상태에 있는 청소년들은 민감성, 사변성, 죄책감, 불안감, 불안성 이상 5개 요인의 평균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역시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요인은 낮은 과잉보호상태에 있는 청소년의 평균점수가 높고, 부정적인 요인은 높은 과잉보호상태에 있는 청소년의 평균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청소년들에 대한 부모의 돌봄의 정도가 높고 과잉보호의 정도가 낮을수록 긍정적인 성격 특성과 관련성이 많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부모의 양육행동 중 돌봄변인은 16PF의 일차요인에 '+'(정)의 방향으로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과잉보호의 정도를 줄이는 것보다 돌봄의 정도를 높이는 것이 일차요인의 점수를 높이는 데 유리하며, 과잉보호변인은 16PF의 이차요인에 '-'(부)의 방향으로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돌봄의 정도를 높이는 것보다 과잉보호 정도를 줄이는 것이 이차요인에 더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16PF와 가출행동과의 관계에서는 16PF 22개 요인 중 긍정적인 의미를 내포하는 요인의 점수가 높은 청소년이 가출할 가능성이 작고,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는 요인의 점수가 높은 청소년이 가출할 가능성이 크게 나타났다.

넷째, 청소년의 가출행동과 16PF 간의 인과관계에서는 16PF 일차요인 중에서는 지능, 대담성, 실리성이 높을수록 가출행동이 적게 나타나고, 16PF 이차요인 중에서는 창의성이 좋고, 외향성과 강정성이 강할수록 가출행동이 적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부모의 양육행동이 현재 형성된 16PF와 어떤 관계에 있고, 또 현재 나타난 16PF는 가출행동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부모의 양육행동이 높은 돌봄상태에 있거나, 낮은 과잉보호상태에 있는 청소년들일수록 16PF 중 긍정적 의미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또한 가출행동도 적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부정적 의미의 점수가 높을수록 가출행동이 많이 나타난다는 점도 발견되었다.

이는 부모의 돌봄이 높을수록, 그리고 부모의 과잉보호가 낮을수록 긍정적인 성격 특성과 관련되고, 이러한 성격 특성은 가출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은 종합해 볼 때, 돌봄이 높고 과잉보호가 낮은 부모의 양육행동은 자녀의 성격 특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청소년이 건강한 성격으로 성장·발달함으로써 가출행동이 예방 및 억제될 수 있을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청소년 가출의 예방과 대책을 위한 개입방안을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부모의 양육행동에 대한 적극적인 부모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본 연구결과에서 확인된 것처럼 부모의 양육행동은 청소년의 성격 특성과 가출행동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부모의 양육행동에 대한 예방적 차원의 개입은 청소년 가출을 방지하고 억제할 수 있는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모



들이 자녀를 효과적으로 양육할 방법을 모르고 있거나 청소년기 자녀의 특성이나 욕구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데 필요한 지식이나 능력, 자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청소년기의 발달적 특성과 자녀양육 방법에 대한 부모교육을 의무화하는 등의 적극적인 예방적 개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출생초기의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경험이 이후의 자아발달이나 성격형성, 적응행동 등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많은 이론들이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부모교육은 청소년기 이전의 영·유아기나 아동기 부모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기 부모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가출예방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조기 부모교육은 청소년 전문기관이나 상담소, 사회복지관, 청소년 쉼터, 학교 등에서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가출청소년이 비가출청소년에 비해 다양한 비행행동을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한국청소년상담원, 2000), 가출이 비행의 전조행동임이 밝혀지고 있다. 따라서 가출 가능성이 높은 청소년들과 가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는 청소년들을 사전에 예측하고 진단하여 조기 개입하는 일은 청소년문제 예방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부모의 양육행동에 의해 형성된 청소년의 성격 특성이 긍정적일 경우 가출할 가능성이 적고 부정적일 경우 가출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결과를 감안할 때 16PF도구나 다양한 척도들을 사용하여 청소년의 성격 특성을 미리 확인하고 평가하는 노력은 가출을 예견하고 방지하는 방안이 된다. 가출 위험성이 높은 청소년들을 초기 사정하여 문제해결 능력의 개선이나 또래관계 개선 등을 위한 개인상담, 집단상담 등의 조기 개입을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청소년 가출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억제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양육행동을 중심으로 하는 가족의 심리역동적 환경을 긍정적으로 강화하고 지지해 줄 수 있는 가족개입이 필요하다. 가출청소년의 경우 그들을 일방적으로 가정으로 돌려보내더라도 가출할 때의 이유가 가족에서 해결되지 않을 경우 재가출률이 50% 이상 된다고 한다(한겨레신문, 2001). 본 연구결과, 부모의 양육행동 중 돌봄이 낮고 과잉보호가 높을수록 청소년들의 가출행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화와 애정이 결핍되고 지나치게 간섭하고 강압적인 가족환경으로 가출청소년들을 다시 돌려보내는 것은 가출청소년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러므로 가족결속과 갈등해결을 위해 부모-자녀관계를 중재하는 가족상담과 심각한 가족문제에 초점을 둔 집중적인 가족치료 등의 전문적인 가족개입 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부모의 양육행동이 청소년의 성격 특성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성격 특성이 청소년의 가출행동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를 간접적으로 확인하고 측정할 수 있는 도구로서 부모의 양육행동을 알아보기 위한 PBI도구와 성격 특성과 관련한 16PF도구를 활용하여 청소년들의 가출행동을 미리 예견하거나 방지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인 가출청소년을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과 보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전체 가출청소년의 특성으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 참 고 문 헌 •

- 강남구 청소년센터. 2000. 《'99 사업보고서》.
- 경찰청. 2000. 《경찰통계연보》.
- 김용석·박명숙. 2000. “청소년 문제행동의 공통요인으로서 부모의 양육태도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제42호. pp. 83~106.
- 김정규·염태호. 1991. “Cattell의 성격이론과 성격요인검사,” 《학생생활연구》, 성신여자대학교.
- 김준호. 1992. “청소년 가출과 비행의 관계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 제3권 4호.
- 김향초. 1998. 《가출청소년의 이해》. 서울: 학지사.
- 김혜영. 2000. “초기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행동이 심리사회적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남북한 교류와 사회복지계의 과제》,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pp. 205~223.
- 나동석·이용교 역. 1991. 《가출청소년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연구원.
- 남영옥. 1999. “청소년의 가출충동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의 심리역동적 환경,” 《한국가족치료학회》 제7권 1호. pp. 97~128.
- 박성자. 1999. “가출 청소년의 MMPI 특성 연구.”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현선·김유경. 1997. “가족관계와 청소년 비행: 부부관계 및 부모-자녀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제32호. pp. 113~135.
- 송지영. 1992. “한국판 부모-자녀 결합 형태 검사(Parental Bonding Instrument): 신뢰도 및 타당도검증” 《신경정신의학》 제31권 5호. pp. 979~992.
- 신림청소년 센터. 2000. 《'99 사업보고서》.

- 엄명용. 1996. "청소년 가출 예방을 위한 가족 및 지역복지서비스 모형," 《한국사회복지학》 제29호, pp. 68~104.
- 염태호·김정규. 1990. 《성격요인검사 실시요강과 해석방법》 서울: 웅진출판사.
- \_\_\_\_\_. 1991. "비행청소년의 성격특성과 성격유형," 《형사정책연구》 제2권, pp. 193~222.
- 이길홍·김현수·민병근. 1982. "학생청소년의 문제행동과 가정의 심리풍토 특성과의 관계에 관한 상관분석," 《신경정신의학》 제21권 4호, pp. 611~627.
- 임종렬·김순천. 1996. "대상분열에 의한 자기도취적 자기학대 - 가출청소년의 심리현상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제30호, pp. 199~226.
- 조선정. 2000. "비행청소년의 어머니에 대한 이미지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겨레신문, 2001. 1월 31일자.
- 한국청소년상담원. 2000. 《청소년의 가출》.
- 한농교·이중용·김용관. 1994. "성격요인과 아동기 부모-자녀결함형태 및 가족환경과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 제33권 1호, pp. 200~212.
- 한상우·오창근·한선호. 1998. "재학생과 재소중인 비행청소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성격요인과 부모의 양육태도," 《신경정신의학》 제 37권 5호, pp. 962~971.
- 한상철. 1999. "가출 청소년의 우울과 자살행동," 《경산대 논문집》 제17호, pp. 35~61.
- 현은민. 2000. "청소년의 가출: 가족적, 개인적 요인 및 대처행동의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제38권 2호, pp. 41~55.
- Amato, P. R. 1986. "Marital Conflict, the Parent-Child Relationship and Child Self-Esteem," *Family Relations*, Vol. 35.
- Bornstein, R. F. and O'Neill, R. M., 1992, "Parental Perception and Psychopathology," *Journal of Nervous Mental Disorder*, Vol. 180.
- Bowlby, J. 1988. *A Secure Base: Parent-Child Attachment and Healthy Human Development*. New York: Basic Books.
- Cattell, R. B, Eber, H. W, Tatsuoka, M. M, 1970. *Handbook for the sixteen personality Factor Questionnaire*. Champaign, Illinois, Institute for personality and ability testing.
- Demo, D. H. 1992, "Parent-Child Relations: Assessing Recent Chang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 54.
- Kernberg, O. F., 1976, *Object-relations theory and clinical psychoanalysis*, Northvale, NJ: Jason Aronson.
- Mahler, M. S., Pine F., & Bergman, A. 1975, *The psychological Birth of Human Infant*, New York: Basic Books.

- Masterson, J. E. 1985. *Treatment of the Borderline Adolescent: A Development Approach*. New York, Brunner/Mazel, Publishers.
- Parker G. 1983. *Parental overprotection*. New York: Grune & Stratton.
- Roberts, A. E., 1987, *Runaways and Non-Runaways, An Exploratory Study of Adolescent and Parental Coping*, Illinois, The Dorsey Press Chicago.
- Scharf, J. S., 1989, *Foundations of Object Relations Family Therapy*, New Jersey, Jason Aronson Inc.
- Sharlin, S. A., & Mor-Barak, M. 1992. "Runaway girl in distress: Motivation, background and personality." *Adolescence*, Vol. 27, pp. 387~405.
- Unger, P. B., Kipke, M. D., Simon, T. R., Johnson, C. J., Montgomery, S. B., & Iverson, E. 1998. "Stress, coping, and social support among homeless youth."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Vol. 13, No. 2, pp. 134~157.
- Weigel, D. J., Devereux, P., Leigh, G. K., Ballard-Reisch, D. 1998. "A longitudinal study of adolescents' perceptions of support and stress: Stability and change."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Vol. 13, No. 2, pp. 158~177.

## The Effects of Parental Child-rearing Behavior upon Adolescents with Personality Traits and Runaway Behavior

Nam, Young-Ok

(Dept. of Social Welfare, Hannam University)

This study was designed to look at the relationships between parental child-rearing behavior and personality traits and run-away behavior of youths. For the purpose, this study compared 156 youth from the juvenile correctional systems, and 146 youths from high-schools. The additional focus was to find personality differences between runaway youths and non-runway youths, and the effects of parental child-rearing behavior.

The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high caring and low overprotection, among parental child-rearing behavior, was found to have effects upon adolescents with positive personality factors, whereas parental low caring and high overprotection effected upon negative personality factors among youths.

Second, in relationship between runaway behavior and personality factors, it was found that youths with positive meaning in personality factors turned out to be less likely to run away from home, whereas those with negative meaning in 16PF were more likely to run away.

Lastly, adolescents in high caring and low overprotection state with parents, proved to have high scores in personality factors, and low probability in runaway behavior.